통일신보

무 소 속 대 변 지

제4호 【루계 제2155호】

주체101(2012). 1
21
토요일
음력 12. 28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관람하시고 조선인민군 제16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4.25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는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관람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극장에 들어서시자 관람자들은 백두산총대를 억세게 틀어쥐시고 선군의 기치높이 주체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을 누리에 떨쳐가시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시며 희세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였다.

《애국가》가 주악된 다음 관람자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추모하여 묵상하였다.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취주악과 혼성합창 《김정일동지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승리의 열병식》, 녀성독창 《전선길에 눈이 내리네》, 가야금병창 《선군의 그 길을 생각할수록》, 남성합창 《백두의 말발굽소리》, 녀성독창과 혼성방창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 무용 《우리는 강성대국의 수호자, 건설자》, 혼성6중창과 혼성합창 《우리의 김정일동지》, 혼성합창 《그리움은 끝이 없네》, 녀성중창 《경애하는 그이품에 안긴 이 행복》, 남성3중창 《내가 지켜선 조국》, 녀성민요4중창 《내 나라의 가풍》, 타프춤 《군가에 발을 맞추자》, 남성독창과 남성합창 《동지애의 노래》, 남성합창 《하늘의 방패 우리가 되리》, 《수령이시여 명령만 내리시라》, 무용 《최후의 결전》, 혼성합창 《조선의 힘》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어버이장군님께서 최대의 혁명유산으로 물려주신 총대의 귀중함을 되새겨주는 설화시 《조선아 말해보자》로 공연은 절정에 이르렀다.

《발걸음》,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의 노래가 울리자 장내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여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대를 이어 누려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감격과 환희로 하여 용암마냥 끓어번졌다.

전군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높이 최고령도자의 군령도를 충직하게 받들며 오늘의 총공격전에서 주력군, 핵심이 되려는 우리 군대의 결사의 각오로 충만된 공연은 취주악과 합창 《위대한 선군령장 만만세》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안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사상적대가 강하고 시대정신이 뚜렷하며 전투적기백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진행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하시고 감사를 주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창작, 창조활동에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 인민군대의 본태와 혁명적성격의 진면모를 힘있게 과시하였으며 붉은기를 높이 들고 선군혁명천만리길을 끝까지 걸어갈 군대와 인민의 굳은 각오를 사상적으로 깊이있게 보여준 공연이라고 치하하시면서 장군님께서 보시였으면 만족해하시였을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관람자들속에서 좋은 반영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일군들의 보고를 들으시고 군인들과 인민들이 바란다면 공연을 더 진행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임덕수 공훈국가합창단의 가수에 대해 추억하시면서 그가 늘 서있던 자리에 없으니 빈자리가 생긴것 같아 서운했다고, 그는 수십년을 혁명군가와 함께 한생을 바치다가 순직하였다는 최상의 믿음을 안겨주시였으며 일군들이 가족들에게 임덕수동무처럼 당을 믿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기 바란다는 자신의 부탁을 꼭 전해달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인민군대안의 예술단체들앞에 나서는 임무와 그 관철을 위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인민군대안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들끓는 현실에 깊이 들어가 화선식예술선전, 예술선동활동을 벌리는것이 올해 인민군대예술단체들앞에 나서는 중요한 임무이라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늘 공연이 잘되였다고 거듭 치하해주시면서 인민군대안의 창작가, 예술인들이 앞으로도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을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투쟁의 노래를 더 높이, 더 우렁차게 울려가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오중흡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169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군부대에 도착하시자 꿈결에도 뵈옵고싶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를 기다리며 촬영대에 서있던 군인들은 어버이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으시고 굽이굽이 높은 령을 넘고넘으시여 자기들의 초소를 찾아주신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천지를 진감하는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영접보고를 받으신 다음 격정의 눈물을 흘리며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군인들에게 손을 저어 답례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가 터져올라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퍼졌다.

최고령도자께서는 옮기시던 걸음을 거듭 멈추시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오래도록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1998년 5월 이곳 군부대에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5차례나 직접 현지를 밟으시며 잡아주신 명당자리에 군부대 지휘부를 잘 꾸렸다고, 휴양소같다고 못내 기뻐하신 뜻깊은 사연을 전하는 혁명사적표식비와 샘물터를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돌아보시면서 영웅적위훈으로 빛나는 군부대의 자랑스러운 행로속에 어리여있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감회깊이 추억하시였다.

지난해 11월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군부대를 찾아오신 어버이장군님께서 4년전에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그 사랑을 잊지 말고 전투정치훈련을 잘하여 백두산호랑이부대라고 불러주시며 전군의 앞장에 내세워주신 크나큰 믿음에 보답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부대의 훈련정형을 료해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에서 우리 당의 주체적인 군사전법과 전투행동방식, 전투조법들을 깊이 연구하고 실전에 구현하기 위한 훈련을 실속있게 벌려 모든 지휘관들과 군인들을 현대전의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능숙히 수행할수 있는 펄펄 나는 일당백의 싸움군들로 준비시키고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군인회관, 도서실을 돌아보시면서 다양한 사상문화교양자료와 시설들을 충분히 갖추어놓고 군인들의 특성에 맞게 정치사상교양사업을 참신하게 진행하고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어 식당에 들리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병사들을 위한 날》 운영계획을 보시고 지휘관들과 군인가족들이 병사들을 위해 아낌없는 정성을 바쳐가고있는데 대해 기뻐하시였으며 조리대가 좁다하게 차려놓은 갖가지 음식을 보시고 물고기는 어떻게 먹이고있는가, 닭알은 어디서 공급받고있는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였다.

해질무렵이 되였어도 시찰의 길을 멈추지 않으신 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 직속 중대의 병실, 교양실, 훈련상학실들을 돌아보시면서 병사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심정으로 보살펴주시였다.

교양실에 들리시여 DVD노래반주기재의 리용실태를 알아보시면서 노래 《내가 지켜선 조국》을 격정에 넘쳐 부르는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의 2중창과 군부대장의 독창을 들어주시고 박수도 보내주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병영구내를 거니시며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주변의 산들과 록음속에 아담하게 들어앉은 건물들, 체육시설들을 보시고 원림화, 수림화를 훌륭히 실현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최고령도자께서는 떨어지기 아쉬워하는 지휘관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어버이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 찾아오시였던 부대의 지휘관들과 사진을 찍자고 하시며 그들에게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어둠이 깃들어서야 시찰을 마치신 최고령도자를 우러러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는 지휘관들의 손을 굳게 잡아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조선로동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앞장에서 받들어나가는 혁명의 기둥, 강력한 주력군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훌륭히 수행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본사기자

제16차 김정일화축전이 진행된다

걸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만민의 사무치는 그리움과 다함없는 신뢰의 정이 더욱 강렬해지고있는 속에 광명성절을 맞으며 제16차 김정일화축전이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주체101(2012)년 2월 중순부터 김일성화김정일화전시관에서 열리는 축전에는 무력기관들과 성, 중앙기관들, 총련을 비롯한 해외동포단체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그리고 외국의 인사들이 참가하게 된다.

지방들에서도 불멸의 꽃 전시회와 김일성화김정일화온실 참관사업이 있게 된다.

축전은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숭고한 헌신으로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 우리 군대와 인민, 진보적인류가 최대의 경의를 드리는 영생축원의 꽃축전으로 된다.

제16차 김정일화축전은 민족최대의 명절을 뜻깊게 기념하며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려는 천만군민의 지향과 념원을 더욱 뜨겁게 하는데 기여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를 12일과 13일 여러 나라에서 광범히 전하였다.

중국 샹강 봉황위성TV방송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특별보도가 발표되였다고 하면서 특별보도내용을 상세히 전하였다.

중국신문들인 《참고소식》, 《환구시보》,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워스또크메지야통신, 《1통로》TV방송, 신문 《로씨스까야 가제따》, 인터네트통신들인 아시아쯔끼 레뽀르쪼르, 데이타.루, 리아 《27레기온》, 웰남의 신문들인 《꿘도이 년전》, 《하노이 머이》, 인터네트통신 웰남네트, 먄마통신, 인디아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힌두》, 《에이션 에이쥐》, 《데칸 크로니클》, 《데칸 헤랄드》, 싱가포르TV방송, 네팔의 써거르마타TV방송, 까타르의 알 자제라 위성TV방송, 프랑스의 AFP통신, 단마르크신문 《폴리티켄》, 뛰르끼예신문 《휘리예트 라디깔》, 미국의 VOA방송도 《조선 김정일령도자를 생전의 모습으로 모신다고 발표》, 《김정일령도자의 동상이 조선에 건립되게 된다》 등의 제목으로 특별보도를 전하였다.

본사기자

광 명 성 절 기 념 준 비 위 원 회

이 딸 리 아 에 서 결 성

광명성절기념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3일 이딸리아에서 진행되였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의 초상화가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결성식장에 전시되여있었다.

결성식에는 이딸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뗄레암비엔떼TV방송국, 이딸리아주체사상연구위원회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 미리암 뻴레그리니 페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각하를 끝없이 흠모하는 진보적인민들은 그이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정일각하 그대로이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심으로 하여 주체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계승될것이다.

우리는 김정일각하의 탄생을 맞으며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과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위대성을 널리 선전할것이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이딸리아 평화와 사회주의운동 총비서와 이딸리아변증법적유물론무신론자들의 조직 위원장이, 서기장으로 이딸리아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이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을 계기로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천출위인을 추모한 이국의 새와 꽃나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서거로 온 세계가 커다란 슬픔에 잠겨있던 비애의 나날 절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을 더해주는 신기한 자연현상이 머나먼 도이칠란드땅에서도 나타났다.

만민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서거하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3시경 도이칠란드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 출입문앞에는 한마리의 박새가 날아와 부리로 유리를 두드리며 앉아있었다.

박새는 조의식장으로 조의방문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들었으나 자리를 뜨지 않고 1시간동안이나 조의식장을 들여다보다 날아갔다.

또한 추운 겨울날씨인데도 대사관주변에 있는 한그루의 매화나무에는 애도전기간 꽃이 활짝 피여있었다.

목격자들은 정말 처음보는 희귀한 현상이다, 천출위인께서 서거하시였다는 비보에 접한 박새가 조의식장에 찾아와 애도를 표시한 다음 호상을 서고 갔다, 매화나무도 절세위인의 마지막길을 장식해드리려 때아닌 엄동설한에 꽃잎을 펼치였다고 뜨겁게 말하였다.

본사기자

조 국 소 식

오가산식물전시관이 새로 건설된다

오가산자연보호구에 식물전시관이 새로 건설되고있다.

식물전시관은 오가산의 자연풍치에 어울리게 특색있는 건축형식을 갖추게 되며 자연보호구에 있는 희귀한 동식물들을 관찰하고 그에 대한 리해를 폭넓게 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게 꾸려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멀고 험한 이곳을 찾으시고 오가산자연보호구를 잘 보존관리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줄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으며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유훈관철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화평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휘하며 공사를 힘차게 다그치고있다.

군에서는 전시관위치를 확정하고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설계를 앞세웠다.

강력한 건설력량을 뭇고 시공을 짜고들고있다.

기본건설을 맡은 청년돌격대원들이 청춘의 슬기와 용맹을 떨치며 지대정리와 기초파기, 벽체쌓기 등을 일정계획보다 훨씬 앞당겼다.

마감공정을 담당한 건설자들은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였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축물이 번듯하게 일떠섰다.

어버이장군님을 오가산에 모시였던 영광의 날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며 건설자들은 전시관내부의 형식과 구성을 천년원시림의 자연적미가 나게 하는데 힘을 넣고있다.

전시관 중심에는 오가산자연보호구의 면모를 한눈에 볼수 있는 반경화를 형상하고 자연보호구에서 채집한 천수백종의 동식물표본들을 들여앉히고있다.

수종이 좋은 수십종의 나무로 전시관주변에 있는 수목원을 더 풍치있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시키고있다.

본사기자

창광원식목육탕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있다.

정론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다

백설의 대지우에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가 밝아왔다.

하늘처럼 믿고 살던 민족의 어버이를 천만뜻밖에 잃은 대국상에 하늘땅이 몸부림치던 12월의 피눈물이 아직 진하게 고여있는 이 땅에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장엄한 해돋이가 시작되였다.

온 지구에 거대한 격랑을 일으킨 비애의 바다우에서 억척같은 의지로 일어선 천만군민의 대오, 그 진두에는 천출명장 김정은동지께서 거연히 서계신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정녕 그이는 장엄하게 펼쳐지는 민족의 새 100년대와 더불어 인민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솟아오르신 조선의 장군, 전설적령장이시다.

* *

주체조선의 새 100년대는 평범한 날에 례사롭게 시작되지 않았다.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김일성민족사에 특기할 대정치축전으로 빛내이시기 위해 불철주야 심혈을 바치시며 천만군민의 진두에서 폭풍쳐 달리시던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의 박동이 강성부흥의 봄을 눈앞에 두고 그토록 비통하게 멈추어설줄 그 누가 상상이나 하였겠는가.

너무도 뜻밖의 청천벽력에 이 나라 천만군민이 흘리는 비애의 피눈물은 바다를 이루고 그들이 터치는 절통함의 곡성은 하늘에 닿았다.

천만군민이 억이 막혀 터뜨리는 대국상의 피젖은 곡성이 가슴을 허비는 그 모진 상실의 아픔속에서도 어버이장군님께서 이 땅에 두고 가신 사랑하는 인민을 크나큰 한품에 안으시고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주며 손잡아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인민은 가슴터지는 피눈물의 12월을 보내고 새해 장엄한 총진군길의 진두에 서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우러르며 슬픔을 박차고 용기백배 일떠섰다.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김일성세기의 새 100년대 벽두에 인민의 하늘로,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떠오르시여 찬란한 빛을 뿌리고계신다.

돌이켜보면 이 나라 최고의 애국가문인 만경대일가에는 이 세상 그 어느 위인의 력사에도 찾아볼수 없는 뜻깊은 사연들이 깃들어있다.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지원》의 사상과 3대각오를 안고 독립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던 김형직선생님께서 두자루의 권총을 남기시고 이국의 초야에서 서거하시였을 때 우리 수령님께서는 불과 15살밖에 안되시였다.

조선독립운동의 선구자,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였던 김형직선생님을 절통하게 잃고 아직은 어리신 수령님께 상복을 입혀드리기가 너무도 피로워 자신들이 대신 입고 상제가 되였던 독립운동자들과 애국지사들,

그들은 수령님을 대신하여 상복은 입을수 있었을지언정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 독립의 길은 밝히지 못하였다.

투쟁과 단결의 등대를 잃고 방황하던 그들은 오히려 위대한 수령님께 자신들의 마음을 의탁하며 민족의 앞날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하였다.

내가 싸우다 쓰러지면 아들이 하고 아들이 싸우다 못 하면 손자가 싸워서라도 반드시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여야 한다!

김형직선생님께서 남기신 이 엄숙한 당부를 삶의 좌우명으로 새기신 위인을 모시여 전통이 고수되고 력사가 빛난다.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설명절을 앞둔 때에 1월의 맵짠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양민속공원건설장을 찾아주시였다는 소식을 접하고보니 그 의미가 더욱 깊이 새겨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께서는 날이 갈수록 자기의 륜곽을 드러내고있는 건설장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살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있는가, 당창건기념탑, 서해갑문, 인민대학습당, 만수대예술극장을 비롯한 축소판건축물들이 원상그대로 세워지고있는가에 대해 알아보시였고 건축물들을 로동당시대, 선군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특색있게 건설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이어 그이께서는 평양민속공원은 력사주의적원칙과 현대적미감에 맞으면서도 인민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할수 있게 건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건설공법들을 받아들여 공사를 중단없이 밀고나가는것과 함께 관람시설들도 잘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를 위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우리 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전통을 잘 살려 인민들에게 민족적긍지와 자부심을 높여주시려는것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뜻이였다.

주체91(2002)년 2월 어느날이였다.

그날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세상에 우리 나라와 같이 고유한 민족성을 가진 단일민족은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민족성을 강조하고 철저히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는다, 여기에는 민족의 본태를 떠나 그 민족을 생각할수 없다는 깊은 뜻이 어려있었다.

수령님께서는 보통사람들 같으면 아직 자신의 인생도 생각하기 어려운 10대중반에 벌써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운명개척이라는 너무도 무거운 중하를 걸머지시고 장구한 혁명의 길에 오르시였다.

인민이 드린 첫 태양송가인 《조선의 별》도 다름아닌 10대에 받으시였던 우리 수령님이 아니시였던가.

우리 혁명의 시원을 개척하는 그 길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20대에는 우리 민족의 첫 자주적무장력인 항일유격대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일제의 백만대군과 맞서 항일대전을 승리에로 이끄시고 해방된 조국에서 건당, 건국, 건군의 력사적 위업을 이룩하시였을 때 우리 수령님은 30대초반이시였다.

백두산빨찌산의 아들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생애도 일찍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과 잇닿은 위대한 애국의 한생이였다.

총포성 울부짖고 눈보라 사나운 백두전장에서 탄생하신 그 시각에 벌써 어둠에 잠긴 이 나라의 미래를 밝힐 백두광명성으로 겨레의 칭송을 받으시였던 우리 장군님.

민족의 운명을 지킬 총대와 함께 인생의 첫 자욱을 새기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어린시절에 조국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준엄한 전쟁을 최고사령부 작전대결에서 겪으시며 선군령장의 기질과 담력을 키우시였다.

안팎의 기회주의자들이 제국주의 위협공갈에 흰기를 들던 1960년대초 장군님께서는 10대의 젊으신 나이에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오르시였고 세계사회주의진영이 무너져내리던 1990년대초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험난한 선군장정을 더 줄기차게 이어가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을 뜻밖에 잃고 피눈물의 언덕에서 헤쳐오신 선군의 길은 또 얼마나 처절하고 격렬하였던가.

3중, 4중으로 겹쳐드는 시련과 난관앞에서 우리 장군님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떠맡아안으시고 지키셔야 했다.

온 민족이 일일천추 고대하는 조국통일의 념원도 맡아안으시였고 인류의 희망이고 미래인 사회주의위업을 수호하기 위한 총포성없는 격전도 치르셔야 했다.

인간으로서, 정치가로서, 령도자로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대격전장에 나서신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그 대결전에 나라와 민족의 백년, 천년전도가 걸려있기에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넋과 정력, 심장까지 다 바치시여 나라의 국력을 불패의것으로 다지시고 공화국의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민족의 지나온 100년사는 절세의 애국자, 전설적위인들이 불멸의 한생을 깡그리 불태워오신 위대한 애국헌신의 자욱우에 빛나는 주체의 한세기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어쩌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과 그리도 꼭같이 일찌기 조국과 민족의 중하를 한몸에 맡아안으시였는가.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총화하고 새로운 100년대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할 력사적순간을 눈앞에 두고 어버이장군님께서 너무도 갑자기, 너무도 애석하게 사랑하는 인민들의 곁을 떠나시였다.

어버이장군님을 뜻밖에 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은 풍파사나운 격랑을 헤치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이끌어나가실분은 오직 만경대가문, 백두산일가의 혈통을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뿐이시기에 그이께 모든 운명을 다 맡기였으며 그이를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처럼 마음의 기둥으로,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진두에 나서신것은 고금동서에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위대한 선군혁명위업의 빛나는 계승을 알리는 력사적 선언이였다.

인류력사에 수많은 정치가, 위인들이 기록되여있지만 이렇듯 위대한 령장의 출현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한다.

우리의 최고령도자, 최고사령관께서는 너무도 젊으시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아침에 김일성조선을 더욱 빛내이실 젊으신 위대한 령도자를 받들어 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더없는 행운이고 영광이다.

우리의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의 새 100년대를 이끌어나가실 모든 자질과 품격을 완벽하게 체현하신 걸출한 백두산형의 위인이시다.

지니신 사상이 위대하고 체현하신 예지가 천재적이며 품으신 덕망이 대해같으신 절세의 대정치가, 자주적신념이 강하고 산악같은 배짱과 담력을 지니신 전설적인 천출명장!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나갈 령도자는 무엇보다 뜻이 원대하고 신념이 강하며 자주적인 대와 무비의 담력이 있어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일찌기 어린시절부터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시며 어버이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내 나라, 내 조국을 세계에서 으뜸가는 강성국가로 빛내이실 원대한 리상을 품어오시였다.

오랜 세월 강대국들의 틈에 끼워 수난당해온 약소민족의 지정학적숙명론을 단호히 부정해버리시고 조선을 중심으로 세계를 교찰하신 비범한 정치적식견을 벌써 10대에 밝히시여 세인을 놀래우신분이 바로 우리의 김정은동지이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빛내여주신 선군의 조국을 세상이 우러러보는 통일강성대국으로 빛내이실 웅지를 안으시고 애국의 발자욱을 이 땅의 방방곡곡에 찍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우리 인민이 오래전부터 심장속에 모셔온 그이의 모습은 총대로 조선혁명을 개척하고 그 명맥을 지켜온 빨찌산일가의 정신을 그대로 이으시여 어린시절부터 총대를 류달리 사랑하시며 총대와 함께 성장하신 장군형의 남아이시였다.

김일성군사종합대학시절의 10대에 군사원로들도 무색케 하는 령장의 자질을 완비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공지구위성발사와 핵시험 등 나라의 위력을 최강으로 다지기 위한 거창한 작전을 진두지휘하시여 원쑤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였다.

조선인민군 근위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적의 아성을 단숨에 짓뭉개버릴 의지와 담력으로 무쇠철갑을 직접 조종하여 질풍처럼 내달리신 그 기상은 그 어떤 대적도 제압하며 조선을 백승에로 이끌어가실 뛰여난 장군의 모습이였다.

명절의 밤하늘가마다에 신비경, 황홀경으로 수놓아지던 우리 식 축포의 장쾌한 불보라와 가는 곳마다 펼쳐진 일망무제한 파수바다,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과 최첨단돌파의 열풍에서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받들어 선군의 내 조국을 세계가 우러러보는 부강번영하고 문명한 나라로 일떠세우시려는 김정은동지의 원대한 리상과 불타는 열정,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천재성과 비범성을 본다.

우리의 김정은동지는 만인을 품어안는 태양과도 같으신 가장 자애로운 어버이, 가장 걸출한 인민의 정치가이시며 인덕의 최고체현자이시다.

어버이장군님을 천만뜻밖에 잃고 맞고 보낸 잊을수 없는 낮과 밤들, 이 짧고도 긴 력사의 순간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인덕정치의 한없는 세계를 인민은 보았다.

그것은 눈물겨움도록 뜨거운 인민사랑의 대서사시적화폭이였다.

어버이장군님의 령전을 끝없이 찾아오는 천만군민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분렬의 장벽을 넘고 대륙과 대양을 건너 달려온 동포조의방문성원들을 일일이 손잡아 따뜻이 맞아주신 김정은동지,

그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시련만 위대한 장군님께서 맡기고 가신 인민이 그리도 소중하시여 깊은 밤에 평양시내의 곳곳에 있는 조의식장들을 돌아보시며 인민들에게 조그마한 불편도 있을세라 다심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어버이사랑에 천만군민이 목메이고 전세계가 격정을 터친다.

심장으로 흘러드는 어버이의 그 온기, 그 사랑에 슬픔으로 얼고 얼었던 마음들이 녹았고 그이의 자애로운 눈빛과 따사로운 손길에서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얻은 우리 인민이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시고 인민의 행복을 위해 모든것을 바치시는 위대한 어버이!

하기에 우리 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운명의 태양, 마음의 기둥으로 간직하고 그이를 민족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받들어모신것이 아닌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출중한 정치적자질과 뛰여난 령도력, 대해같은 덕망에 대한 최대의 존경이고 뜨거운 흠모이며 가장 진정한 매혹이다.

지금 전세계는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드시여 강인담대하게 나가시는 그 거룩한 모습과 힘찬 발걸음에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풍모도 기질도 필체와 발걸음까지도 절세의 위인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에 매혹되여 서방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대서특필하며 격찬하고있다.

이 지구가 생겨나 언제 이렇듯 큰 파문과 감동, 흥분으로 끓어번진적이 있었던가.

정녕 김일성민족의 새 100년대와 더불어 또 한분의 위대한 태양을 받들어모신것은 우리 겨레와 민족이 받아안은 최상최대의 행운이며 크나큰 영광이다.

하기에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일찌기 해방조국의 첫 기슭에서 혁명시인 리찬이 어버이수령님께 드렸던 찬가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격조높이 터치고있는것이다.

장군이 오시는것은
아, 아무도 몰랐으나
장군이 오신것은 누구나 알았다
장군은 가리울수 없는 우리의 빛
장군은 감출수 없는 우리의 태양
… …
누구나 장군이 젊다 한다
그렇다, 장군은 젊다
… …
장군은 남조선도 비칠, 남조선도 비쳐야 할
아 아, 삼천리 전강토의 위대한 태양
장군은 만민의 령장, 인류의 태양
동방에서 솟은 태양 온 누리를 비치리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첫 년륜이 새겨지는 이 시각 우리의 영원한 어버이이신 김정일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말씀이 귀전에 들려오는것만 같다.

슬픔을 거두고 앞을 보라고, 피눈물의 12월뒤에 승리의 1월이 있다고.

그렇다. 시간이 흐를수록 위대한 태양이신 김정은동지의 보무당당한 발걸음은 더욱더 지구를 진동할것이며 김일성민족이 열어가는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100년사는 승리와 영광으로 천추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계시여 조선의 태양은 영원하며 우리 민족의 앞날은 보다 휘황찬란할것이다.

김성혜

만수대창작사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

민족의 력사와 문화전통을 귀중히 여기시여

선군정치를 계승해나가시는 령장의 모습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위인상을 8일과 9일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널리 소개하였다.

뛰르끼예신문들인 《휘리예트 데일리뉴스》와 《투데이즈 자만》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의 군부대시찰을 보여주는 사진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중앙TV방송이 김정은령도자의 군현지시찰모습을 담은 기록영화를 방영하였다.

이것은 김정일령도자의 선군정치를 계승해나가시려는 김정은령도자의 확고부동한 결심을 보여주고있다.

에짚트 TV방송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륙해공군합동훈련을 지도하시는 장면들을 방영하면서 김정은령도자의 군부대시찰 등은 김정일령도자께서 생존해계실 때와 같은 감명을 주고있다,

마쟈르의 TV방송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대표자회에 참석하신 장면, 김일성광장주석단에 계시는 장면, 군마를 타고 달리시는 장면, 땅크를 몰아가시는 장면, 공장과 군부대를 시찰하시는 장면 등을 방영하였다.

로씨야의 인터네트통신 뉴스. 루, 타이신문 《방코크 포스트》, 미국의 AP통신과 신문 《뉴욕 타임스》, 영국의 BBC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아사히신붕》, 《마이니찌신붕》, 오스트리아의 아파통신과 ORFTV방송도 《조선의 새 령도자 김정은》, 《새로운 령도자의 천품》 등의 제목으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위인상을 소개하였다.

본사기자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한 선군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온 겨레와 함께 계신다

조 국 통 일 연 구 원 공 보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그토록 온갖 로고를 기울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잃은 온 겨레의 절통함은 이루다 헤아릴수 없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과 민족을 그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하시고 민족의 존엄과 기개, 위력을 만방에 떨치시였으며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길에 자신의 한생을 다 바치시여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불세출의 선군태양,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이시다.

하기에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의 대국상에 비통한 심정을 금치 못하면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가장 경건하고 숙연한 마음으로 추모하였다.

온 남녘땅과 이역만리에 굽이친 겨레의 심심한 애도의 대하는 민족의 걸출한 영웅, 희세의 대성인, 전설적위인에 대한 최대의 흠모이고 그리움의 최고정화였다.

조국통일연구원은 민족의 대국상기간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속에서 뜨겁게 분출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추모열기를 내외에 널리 알리고 길이 전하기 위해 이 공보를 발표한다.

1

지난해 12월 19일, 그날은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에게 있어서도 평범한 하루로 흘러가고있었다. 낮 12시 청천벽력과도 같은 비보가 온 남조선과 전세계를 크게 뒤흔들어놓았다. 이 땅덩어리가 통채로 꺼져내렸던들, 하늘이 무너졌던들 충격이 그처럼 컸으랴. 시간도 흐름을 멈추고 지구도 자전을 멈춘것 같았다. 아니 세상만물이 순간에 다 정지한것 같았다.

전파를 타고 전세계에 퍼지는 대국상을 알리는 비보, 그것은 온 겨레를 심장이 터지는 상실의 아픔과 비애의 바다에 잠기게 하였다. 이 세상에 이처럼 억이 막히는 일이 또 어디에 있는가. 진짜인가 혹시 오보가 아닌가.

남조선의 서울을 비롯한 각지의 역기다림칸들과 식당, 상점 등 곳곳에 설치된 TV를 통해 뜻밖의 비보에 접한 남조선의 각계층 동포들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면서 커다란 충격에 휩싸였다.

인터네트, TV방송을 비롯한 남조선의 모든 언론들이 대국상 비보로 화면과 지면을 가득 채웠다. 남조선신문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태양상을 1면에 크게 모시고 가장 큰 활자로 비보를 전하였다.

여느해같으면 크리스마스날과 새해를 맞으며 붐비였을 극장과 노래방, 음식점을 비롯한 봉사망들이 예약되였던 공연과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아 거의 모두 문을 닫았다.

우리의 특별방송이 나간 후 1시간만에 남조선의 《다음》, 《네이버》 등 5대인터네트싸이트들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이 비통함, 국방위원장님 서거에 가슴이 멘다.》, 《안타깝다. 같이 슬퍼하련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민족의 태양이신 국방위원장님의 고귀한 넋은 인민의 심장에 남아 영원히 함께 있을것입니다.》, 《천년만년 인류력사에 칭송되실 김정일장군님》 등의 각종 추모글들이 12만여건이나 올랐다.

해외에서도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슬픔에 몸부림치며 비보를 차마 그대로 믿을래야 믿을수 없다는 동포들의 전화와 전보가 조국으로 비발쳐왔다.

남조선과 해외의 동포들은 한평생 조국과 민족, 통일을 위한 길에 헌신하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고결한 생애와 위인적풍모, 불멸의 업적을 뜨겁게 돌이켜보며 저저마다 흥분된 심정들을 터쳐놓았다.

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태양상과 혁명생애를 보여주는 영상사진들을 모시고 장군님의 략력을 소개하는 특집기사를 냈다.

《주체사상을 체계화하고 집대성》, 《선군정치로 민족의 자주권수호》, 《조미핵대결 주도》,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의 채택발표로 민족앞에 대공헌》 등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전하는 글들이 폭포처럼 쏟아져나왔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를 비롯한 진보적언론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최강국 미국을 무릎꿇게 했다. 미국은 봉쇄와 군사적압박으로 북을 굴복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김정일국방위원장은 핵억제력으로 미국이 백기를 들고 회담장에 나오게 했다.》, 《선군정치를 선택한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결단은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비범한것》이라고 격찬하였다.

그러면서 《시대의 영웅, 큰 별은 갔지만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정신과 업적은 력사와 함께 영원할것》이라고 하였다.

언론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애의 마지막나날까지 초인간적인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오시다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시였다는 내용을 두드러지게 소개하면서 이 세상 그 어느 지도자에게서도 찾아볼수 없는 《광폭행보》, 《폭풍현지지도》, 《순직정신》이였다고 경탄하였다.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은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안겨주시기 위해 북남수뇌상봉을 마련하시고 북남선언들을 채택발표하신것은 민족사에 길이 빛날 력사적장거라고 하면서 국방위원장님께서 오래 계시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끝까지 꽃피우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고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왔던 사람들은 더더욱 애석해하면서 절세의 위인을 뜨거운 감격속에 추억하였다.

2000년 6월 력사적인 평양상봉때 남측수행원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왔던 전 남조선 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은 언론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세련된분이시여서 깜짝 놀랐다, 서방과 남쪽에 대해 박식하게 알고계시였고 두뇌가 명석하시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서거는 정말 충격적이라고 자기의 애석한 심정을 피력하였다.

2005년 6월 평양을 방문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접견을 받은 전 남조선통일부 장관 정동영도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소탈하고 솔직하며 시원시원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지도자이시였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였으며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은 남북관계나 국제정세에 대해 내부형편과 기술적인 문제까지 환히 꿰뚫고 소상하게 파악하고계신 대단한 능력의 소유자이시였다고 찬탄하였다.

김대중 전 남조선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 전 남조선 《국무총리》 리해찬, 리화녀자대학교 총장 장상, 전국경제인련합회 부회장 손병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 수석부의장 김민하를 비롯한 평양상봉연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성격이 호방하고 례의를 갖추면서 분위기를 잘 이끄시던 모습이 인상적이였다, 좌중을 휘여잡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계시였다, 친밀감이 참 큰 분이시였다,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계시였고 통일에 대한 열정과 민족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계시였다 등으로 자기들이 받았던 인상들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2001년 4월 평양에서 열린 제1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여 위대한 장군님을 뵈왔던 남조선가수 김련자는 비보에 접하여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면서 김정일국방위원장은 섬세하고 자상한분이시였다,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였다, TV에서 현지지도를 하시는 모습을 보고 건강하신것 같아 마음을 놓았는데 서거하시였다니 깜짝 놀랐다, 정말 믿어지지 않는다, 거짓말인줄 알았다, 국방위원장님께서 다시 와서 지방에서 공연하라고 하시였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하다, 나중에라도 그 약속을 지키고싶다고 격정을 터쳤다.

남조선의 언론들은 세계 여러 나라 지도자들과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해 누구도 따를수 없는 대전략가, 대담하시고 예측할수 없는 지략과 정책을 구사하신분, 론리적이신분, 강렬한 에네르기를 발산하시는분, 다재다능하시고 다양한 방면에 대한 화제가 풍부하신분, 힘과 유모아, 신적인것이 느껴지는 매력적인 지도자 등으로 칭송한 회고담을 그대로 전하였다.

위인을 경모하는 마음은 해외동포들속에서도 뜨겁게 표시되였다.

재미통일학연구소 소장, 《민족통신》 대표를 비롯한 많은 해외동포들이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추모의 마음을 담아 《김정일위원장과 조국의 운명》, 《밤은 깊어가도 동포들의 눈물 끝없이 흘러》, 《늘어나는 해외동포들 조문방북》 등 추모글들을 인터네트와 출판물들에 실었다.

한 재미동포는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다음과 같은 글을 실었다.

《도대체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김정일국방위원장님처럼 현지지도의 길을 달리던 야전렬차에서 이른 아침 생을 마감한 지도자가 또 있을가. 〈유일초강국〉이라는 명패를 내걸고 지구는 물론 우주공간까지 타고앉아 마치 온 세상을 호령하듯 군림했던 오만한 미국을 끝없는 굴욕과 패배의 나락으로 떨구었던 그러한 위대한 지도자를 다시 만날수 있을것 같지 않다.》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속에서 뜨겁게 울려나온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경모와 추모의 목소리는 진정 민족의 영웅, 절세의 위인, 겨레의 어버이에 대한 가장 높은 칭송이고 열화같은 그리움의 분출이다.

2

민족의 대국상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과 해외동포들의 추모의 마음은 조의표시와 조문열풍에서 더욱 뜨겁게 나타났다.

특별방송이 나가자마자 남조선의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들은 일제히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 론평 등을 발표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민주로총, 《한국로총》, 진보련대, 전국녀성련대, 참여련대, 《21세기 한국대학생련합》,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등 수많은 각계층 단체들이 깊은 애도를 표시하고 조전을 보내여왔다.

전 남조선문화관광부 장관 박지원, 전 통일부 장관 리재정을 비롯한 정계, 사회계인사들은 자기들을 따뜻이 맞아주시고 한량없는 은정을 부어주시던 위대한 장군님을 잊지 못해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의를 표시하였다.

애도기간 남조선의 정당들과 통일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들 그리고 각계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에 삼가 애도를 표시하여 공식 또는 비공식으로 보내온 조의문은 수천건에 달하며 피뢰통일부가 저들이 접수했다고 공개발표한것만도 77건에 달한다.

남조선 각계층은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안고 너도나도 조문단을 무어 평양으로 향하였다.

김대중 전 남조선대통령의 부인 리희호녀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일행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수백리길을 달려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였다.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 공동대표 황혜로도 사선을 헤치고 평양을 방문하여 민족의 어버이의 령전에 삼가 인사를 올리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각기 조문단을 구성하고 피뢰통일부에 북방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로무현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의 유가족들도 조의방문할것을 주장하였다.

정계, 사회계인사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발표하시여 조국통일의 리정표를 마련하신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에 조의를 표시하는것은 초보적이고 당연한 례의라고 하면서 《정부》가 조의방문단을 파견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정부》가 조문단을 보내지 않으면 《국회》라도 조문단을 파견하겠다고 하면서 당국에 이를 허용할것을 요구해나섰으며 그것도 못하겠으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명의의 민간조문단이라도 평양에 보낼수 있게 하라고 들이댔다.

그러나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여 인륜도덕도 다 쥐버린 천하야만들인 리명박역적패당은 《국론분렬》이니, 《남남갈등》이니 뭐니 하면서 남조선 각계층 인민들의 조의표시와 조의방문단파견요구를 묵살하고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은 극도로 격분하여 기자회견과 성명 등을 통해 민족의 미풍량속도 모르고 인간의 초보적인 도리마저 짓밟는 행위라고 역적패당을 신랄히 단죄하였다.

지어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법원의 판사들까지도 피뢰당국의 조문탄압망동은 《나치스와 같은 야만행위》라고 분노를 터치였다.

《보안법》피해자모임,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한겨레》 신문주주대표단, 항일독립운동가협회 등 시민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은 피뢰당국이 조의표시와 조문을 탄압하는 속에서도 각지에 분향소들을 설치하면서 조의투쟁을 치렬하게 벌렸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4학년 녀대학생 박선아는 대학교 학생회관에 김정일국방위원장 추모분향소를 차려놓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조선의 김대중 전 대통령과 손을 잡고 높이 쳐드신 영상사진을 정중히 모시였다.

분향소를 찾아 조의표시를 하려던 대학생들은 파쇼경찰들이 분향소를 짓뭉개며 강제로 해체하려고 하자 김정일국방위원장에 대한 최소한의 례우라도 지켜야 한다고 하면서 당당하게 맞서 싸웠다.

피뢰당국은 각지의 분향소들을 강제로 철거시키고 관련자들을 무리로 잡아가두는 파쇼적만행을 감행하였다.

피뢰패당의 탄압에 대응하여 각계층 인민들은 인터네트에 수많은 싸이버분향소들을 설치하고 조의표시를 하였다.

남조선의 전라북도 전주시 모악산기슭에 자리잡은 전주김씨의 시조묘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절을 하는것으로 조의표시를 하기도 하였다. 그들은 력사적인 6월 평양상봉시 위대한 장군님께서 전주김씨라고 하신 일화를 뜨겁게 회고하면서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데 대한 애석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 명예의장인 라창순과 고문들인 강순정, 리천재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6.15마음으로 조문간다》고 쓴 프랑카드를 들고 군사분계선앞까지 와서 피뢰군사깡패들에 의해 저지당하자 《우리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조문간다. 길을 비켜라.》고 추상같이 웨치면서 맞서 싸웠다.

그들은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북도 같은 조국인데 최고지도자의 서거에 조문가는것은 응당하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해주신데 대해 높이 평가해야 한다, 당국의 조문탄압횡포를 앉아서 당할수만은 없다고 분노를 터뜨렸다.

해외동포들속에서도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경모와 추모열풍이 뜨겁게 휘몰아쳤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 까자흐스딴고려인통일련합회, 재미동포전국련합회, 중국 조선족기업가협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련합회, 세계평화련합 등 해외동포 조의대표단, 조의방문단들과 재도이칠란드동포 윤이상가족, 재로씨야동포 정일심을 비롯한 개별적인 동포들이 불원천리하고 달려와 평양시내 여러곳에 꾸려진 조의식장들에서 조국인민들과 함께 호상을 섰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을 찾아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였다.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은 해외동포들은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언제 한번 편히 쉬지 못하신 우리 장군님과 같으신분은 이 세상에 없다, 장군님을 너무도 갑자기 잃은것은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손실이라고 통분해하며 흐르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였다.

로씨야고려인통일련합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은 추모위원회를 조직하고 애도기간 우리나라 대사관에 꾸려진 조의식장방문, 조전 및 조의담화발표, 동포추모모임 등을 진행하였다.

재미동포전국련합회, 6.15공동선언실천 해외측위원회 유럽지역위원회를 비롯한 해외동포조직들과 해외동포인사들은 추모글들과 조의문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로 공화국을 강력한 핵보유국으로 위용떨치게 하시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과 맞서 싸워 백승하시였다고 하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나라의 평화통일과 세계자주화를 위해 한평생을 바치신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어나갈 굳은 결의들을 표명하였다.

애도기간 중국과 미국, 로씨야 등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조직들과 개별적인 동포들이 보내온 조의편지와 조전은 500여건에 달하였다.

세계 각국에 있는 우리 나라 대사관과 해외동포조직들에 꾸려진 조의식장들에는 해외동포들의 조의행렬이 그칠새 없이 이어졌다. 조문객들이 가지고온 화환들은 너무도 많아 조의식장밖에까지 놓지 않으면 안되였다.

남조선과 해외동포 언론들과 인터네트들에는 민족의 대국상앞에 천추만대를 두고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 리명박패당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는 글들이 차고넘쳤다.

민족의 어버이를 추모하는 남조선의 각계층과 해외동포들의 열풍은 그야말로 이 세상 가장 진실하고도 뜨거운것이고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수 없는 강렬한 것이였다.

3

민족의 대국상으로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헤아릴수 없는 상실의 아픔을 당하였지만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실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새로운 신심과 희망을 가지고 분연히 일어설수 있었다.

그처럼 그리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뵈옵고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민족애, 거룩하신 위인상에 접한 해내외동포들은 끝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고 애도기간 여러차례나 조의식장에 나오시여 호상을 서시는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의 충효심에 탄복하였다.

특히 영결식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구차와 함께 걸어나오시는 모습과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거수경례를 하시는 모습 등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이의 높은 충효심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크나큰 감동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운 날씨에 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을 념려하시여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 소식, 애도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물고기를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신 사실 등을 해내외동포들은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천품을 타고나신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상을 뵈옵고 그이의 숭고한 도덕의리심과 민족애, 거룩하신 위인상에 접한 해내외동포들은 끝없는 격정에 휩싸였다.

그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모시고 애도기간 여러차례나 조의식장에 나오시여 호상을 서시는 모습을 우러르며 그이의 충효심에 탄복하였다.

특히 영결식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령구차와 함께 걸어나오시는 모습과 내리는 눈을 맞으며 거수경례를 하시는 모습 등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그이의 높은 충효심을 그대로 보여주는것이라고 하면서 크나큰 감동을 표시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추운 날씨에 조의식장을 찾는 인민들을 념려하시여 은정어린 조치들을 취해주신 소식, 애도기간에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물고기를 평양시민들에게 공급하도록 하신 사실 등을 해내외동포들은 인민의 어버이로서의 천품을 타고나신분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생각할수 없는 일이라고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희호녀사와 현정은회장일행이 조의방문할수 있게 모든 편의를 보장해주도록 하시고 일행의 숙소를 국가수반들을 위해 마련된 백화원영빈관으로 하도록 하시였으며 리희호녀사에게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들었던 방에 들도록 하시고 그가 왔을 때와 꼭같이 잘 대우해주도록 세심한 관심을 돌려주신데 대해 상세히 보도하면서 그들이 특별환대를 받았다고 하였다.

특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금수산기념궁전 조의방문행사때 친히 리희호녀사와 현정은회장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먼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시는 등 따뜻이 맞아주시였다고 격정을 금치 못하였으며 일행이 남조선에 돌아가자 기자회견을 가지고 감동적인 사실들을 널리 보도하였다.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그 거룩하고 인자하신 모습으로부터 비범한 기품과 풍모, 발걸음과 손동작에 이르기까지 어버이수령님 그대로이시라고 하면서 매혹되고 흥분된 심정을 감추지 못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만나뵈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 최은복, 재미동포전국련합회 회장 윤길상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름름하고 인자하신 모습이 김일성주석과 같았다, 부드럽고 다정한분이시라는 인상을 받았다, 마치 어버이가 자식을 품어주는듯 한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누구보다 상실의 아픔이 크시고 나라의 중하를 한몸에 걸머지신 그 바쁘신 속에서도 국가적인 추모행사들을 우리 식으로 특색있게 엄숙히 조직하신데 대해 숭고한 도덕의리와 탁월한 령도력과 결부시켜 널리 보도하였다.

특히 빈틈없이 조직된 금수산기념궁전 조의방문행사, 영결식과 중앙추도대회 등 추모행사들을 놓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비범한 령도력과 조직력, 우리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북에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 꼭같으신 김정은부위원장께서 계신다, 김정은부위원장은 유능하면서도 대담하시고 치밀한 후계자로서의 위상을 남김없이 과시하시였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은 김정은부위원장께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있다, 세계는 이미 김정은부위원장을 조선의 최고령도자로 공인하였다고 전하였다.

남조선과 해외동포들은 애도기간 조의식과 영결식 등 추모행사과정에 펼쳐진 일심단결의 대화폭앞에 더욱 감동되여 자기들의 격정을 뜨겁게 터치였다.

남조선의 《자주민보》는 재미동포언론인 《민족통신》 특파원의 글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거행하는 북주민들의 모습은 인류력사에서 볼수 없는 감동 그 자체였다. 내리고내리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시민들이 자기의 목도리, 솜옷을 길에 깔아놓는 장면들, 비자루를 들고 쓸고 또 쓰는 장면들, 목도리와 웃저고리를 벗어들고 내리는 눈을 가리고있는 모습들… 이 세상에 지도자와 인민이 이렇게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는 한식솔이 될수 있을가? 자기 지도자에 대해 저토록 흠모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이 이 세상 어디에 있을가? 이런 나라는 지구상에 더는 없다. 바로 지도자와 인민이 이토록 존경하고 사랑하기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수 없는 일심단결이 이루어지고 그 일심단결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덤벼들지 못하고있는것 아닌가.》

한편 남조선의 《통일뉴스》는 《김정일국방위원장 영결식, 하늘도 울고 땅도 울다》라는 제목으로 중국 영문인터네트신문 《제4언론》 책임주필인 재미동포 정기렬의 글을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눈물없인 볼수 없고 들을수 없는 최고지도자와 전체 인민사이의 위대한 참된 사랑의 이야기에, 일찌기 인류력사 그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에 하늘마저도 감동했기때문일가? 하늘마저도 절절히 비통해하는 북녘동포들의 몸과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싶었기때문일가? 밤새 내린 눈은 12월 28일 영결식때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렸다. 눈이 펑펑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평양시내 영웅거리, 통일거리 등 령구차가 지나게 될 100여리의 거리로는 이른 아침부터 수백만의 평양시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평양주재 각국 외교관들, 유엔 및 국제기구 성원들, 세상 곳곳에서 급히 평양을 찾은 해외동포들을 실은 차량대렬이 영결식이 거행되는 금수산기념궁전으로 가기 위해 떠났으나 10분정도면 갈수 있는 구간을 시간이 지체되여 영결식시각이 다 되여서도 제대로 도착할수 없었다. 그 리유는 구름처럼 몰려든 인산인해의 시민들때문만이 아니였다. 령구차가 지나게 될 거리거리에 끝없이 내리는 눈을 치우고 닦는것도 모자라 길우에 자신들의 외투와 목도리를 벗어 깔고 지어는 외투를 벗어 펼쳐들고있는 시민들로 인해 앞으로 나가기 어려웠기때문이였다.

…영결식이 시작되자 평양시민들은 장군님, 가시면 안된다고 울부짖고 통곡하며 령구차행렬을 막아나섰다.

그 어떤 말과 글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상상을 초월하는, 눈물없이는 말할수 없고 쓸수도 없는 이러한 대서사시가 인류력사에 언제 또 있어보았는가.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서프라이즈》는 《령도자와 인민의 일심단결, 온 나라가 한가정이 된 불가사의한 나라 조선. 오직 자기 수령, 자기 당, 자기 조국밖에 모르는 저리도 소박하고 진실한 마음들이, 그런 하나와 같은 마음들이 조선의 진짜힘이요. 진짜모습이다. 바로 그것이 조선의 강대함이다.》라고 하였다.

남조선의 정세분석가들과 언론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사상과 리념, 방법론에 기초한 정치를 펴실것이며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립각한 통일로선을 한치의 드림없이 견지해나갈것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인터네트들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대성을 소개선전하는 홈페지들이 련이어 개설되고 또 한분의 젊으신 장군, 백두산호랑이 김정은동지에 의해 대미, 대남대결전에서 최후승리가 눈앞에 도래하고있다는 글들이 가득 넘치고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 남승우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은 김일성민족의 심장이시고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억센 기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열렬한 충정과 특출한 령도력, 숭고한 인덕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조국, 장군님의 인민을 피눈물의 바다에서 안아일으키고계신다고 하면서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해외동포들은 이국땅에 살아도 마음이 든든하고 조국의 미래가 창창하며 통일의 새 아침이 기어이 밝아올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고 하였다.

내외신들은 지금 세계정치계와 언론계의 가장 주목을 끄시는분은 김정은동지이시고 이 세상 가장 젊으신 령도자도 김정은동지이시라고 높이 칭송하고있다.

실로 피눈물속에 보낸 애도기간 남녘겨레들과 해외동포들이 보여준 뜨거운 추모의 마음과 열화와 같은 위인칭송의 목소리는 우리 민족이 얼마나 위대한 태양을 어버이로 모시고있었는가를 가슴깊이 절감하게 한다.

우리 민족이 대를 이어 천출위인을 받들어모시게 된것은 대통운이고 최대의 영광이다.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위대한 장군님은 영생하시며 이 땅우에 기어이 통일되고 부강번영하는 강성국가가 일떠설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영원한 선군태양, 민족의 어버이로 천세만세 온 겨레와 함께 계신다.

주체101(2012)년 1월 16일
평 양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북남공동선언의 기치높이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하루빨리 성취하자면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해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이다.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어느 민족이든지 단결하지 못하고 사분오렬되면 민족의 단일성이 파괴되고 결국 하나의 민족으로서 존재할수 없게 된다. 화해와 단합은 민족의 존립과 발전의 근본조건이다.

우리 민족은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단일민족으로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정신이 높고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다. 우리 겨레가 외세에 의하여 민족분렬의 비극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것은 5천년민족사에서 겪게 된 일시적인 곡절이고 비운이다.

조선의 통일을 달가와하지 않는 외세는 우리 나라를 북과 남으로 갈라놓고 대결을 부추기면서 어부지리를 얻으려고 꾀하고있다. 우리 겨레가 북과 남으로 갈라져 대치상태에 있게 된다면 조선민족은 언제 가도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날수 없으며 또다시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면할수 없게 된다.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다시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이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조국통일의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나가자고 해도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해야 한다.

어떤 사회적운동에서든지 주체를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여야 승리할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전체 조선민족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의 자주위업이며 조국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힘도 그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민족에게 있다.

주체의 위력은 다름아닌 단결의 위력이다. 온 민족이 하나로 굳게 뭉쳐 통일의 주체를 강화하는 여기에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우리 민족은 력사적인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통하여 반세기이상에 걸친 민족분렬의 비극을 끝장내고 통일을 앞당기는 지름길을 열어놓았다. 반목과 대립으로 동족대결의 랭기만이 풍기던 이 땅에 화해와 단합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것은 6.15자주통일시대가 안아온 커다란 민족사적사변이다.

삼천리강토가 통일의 환희로 진감하던 6.15의 가슴벅찬 나날들을 통하여 우리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조국통일의 밝은 앞길이 있다는 굳은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지나온 력사는 북과 남의 화해와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확증해주고있다.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여기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화해하고 단합해야 한다.

사상과 리념, 정견과 신앙,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마음보다 우선시될수 없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겨레의 운명을 걱정하는 조선사람이라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뜻과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단결하여 통일의 대문을 열어나가야 한다.

비록 어제날에는 잘못된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오늘 민족을 귀중히 여기고 북남공동선언을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통일애국의 길에서 함께 손잡고 나가야 한다.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것이다.

북과 남의 불신과 대립의 격화는 민족적참화를 초래하기마련이다.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내외분렬주의세력의 반통일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해내외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리명박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야 한다.

전체 조선민족이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통일운동을 과감히 전개해나갈 때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윤현주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실현하자!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새해공동사설에 제시된것처럼 뜻깊은 올해에 온 겨레가 새로운 신심에 넘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켜나가야 한다.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모든것을 여기에 복종시키는것은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이다.

단군을 원시조로 하는 우리 민족은 인류발생의 려명기로부터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이 땅에서 하나의 피줄을 이으며 한강토에서 살아온 단일민족이다. 이러한 우리 민족이 외세가 강요한 분렬로 인하여 60여년간이나 북과 남으로 갈라져 살고있다.

조국통일은 북과 남의 어느 일방을 위한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공동의 리익을 위한것이다.

통일된 강토에서 살아갈 주인도, 함께 손잡고 민족의 번영을 이룩해나갈 당사자도 다름아닌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민족이다. 지금 북과 남에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보다 하나의 민족으로서의 민족적공통성이 훨씬 더 크다. 민족의 각이한 계급, 계층의 요구와 리해관계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 민족앞에 1차적으로 나서는 과업은 조국통일인것만큼 모든것을 조국통일위업에 복종시켜야 한다. 북남사이의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개별적계급, 계층의 리익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민족적공통성과 민족공동의 리익을 외면한다면 민족의 대단결도 조국통일도 실현할수 없다.

6.15통일시대와 더불어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가 지난 4년간 단절과 악화를 거듭한것은 남조선보수당국이 민족공동의 리익을 외면하고 공화국을 어떻게 하나 압살해보려는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한데 중요한 원인이 있다.

동족대결에 환장한 리명박역도가 특대형모략극인 《천안》호침몰사건과 도발적인 연평도포격전을 연출해놓고 《국제사회의 공조로 북을 타격하는것이 외교정책방향》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며 외세와의 공조에 미쳐날뛴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북남관계가 최악의 일로를 걷고있던 지난해초에도 남조선당국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공화국의 폭넓은 대화와 협상제의를 《전술적변화》니, 《진정성이 보이지 않는다.》느니 하는 터무니없는 구실로 거부하면서 미국, 일본과의 반공화국공조를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아갔다.

동족보다 외세를 더 중시하고 민족공조보다 외세와의 공조를 우선시하는 리명박역적패당이기에 지난해 12월 민족의 대국상에 칼질을 하는 반인륜적, 반민족적만행도 서슴없이 감행한것이다.

현실은 이런 극악한 동족대결미치광이인 리명박패당을 두고서는 북남관계개선도, 나라의 통일도 이룩할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준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감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에게 준엄한 철추를 안겨야 한다.

정학준

통일교실 민족적단합

공화국의 올해공동사설에서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은 조국통일의 전제이고 담보라고 지적하였다.

민족적단합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공동의 리익과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민족이 힘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것을 말한다.

단결은 민족의 생존방식이며 민족의 뭉친 힘은 그 무엇으로도 당하지 못한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강토우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살아온 우리 민족은 단결력이 강한 민족이며 외세의 침략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물리친 슬기로운 전통을 가지고있다.

우리 민족이 한결같이 바라는 조국통일도 오직 민족의 단합된 힘에 의해서만 성취될수 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조국통일위업은 북과 남으로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실현하는 위업이다. 북과 남의 화해와 민족의 대단결을 떠나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지금 남조선보수당국은 침략적인 외세와 공조하여 동족대결책동에 열을 올리며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엄중히 가로막고있다.

지난해 12월 민족의 대국상앞에 천추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대역죄를 저지른것이 바로 남조선의 리명박역적패당이다.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전체 조선민족은 애국애족의 기치, 조국통일의 기치밑에 하나로 굳게 단합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역적패당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벌리는 남조선청년학생들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6.15통일시대가 펼쳐진 후 화해와 단합의 방향으로 나가던 우리 겨레의 조국통일운동은 극도의 동족대결의식에 사로잡힌 남조선의 현 보수당국이 집권한 때부터 엄중한 난관에 직면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은 집권후 당국간 대화는 물론이고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이바지해오던 북남민간단체들의 대화와 접촉도 악랄하게 가로막았다. 하여 해마다 성대히 진행되여오던 6.15민족공동행사들과 북과 남, 해외 각계층의 통일회합이 현 보수패당의 집권후 단 한번도 열리지 못하였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북남민간단체들사이에 진행해오던 통신련계와 기사교류까지도 차단함으로써 말 한마디, 글 한자마저 주고받을수 없게 하였다. 또한 지난 시기 북측인사들과 접촉한적이 있는 남조선의 통일운동단체들과 진보적인사들을 《보안법》에 걸어 《친북좌파》, 《용공》, 《간첩》으로 몰아 탄압하는 파쑈적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리명박일당은 집권후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감히 건드리는 도발행위들을 계속 감행해나섬으로써 온 겨레의 치솟는 저주와 규탄을 불러일으켰다.

지난해에만도 남조선보수패당은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는 특대형범죄행위를 감행해나섰는가 하면 남조선강원도 철원군에 있는 《백골부대》의 병영과 초소들을 비롯한 도처에 존엄높은 공화국의 체제와 군대를 헐뜯는 구호들을 내붙이는 도발행위도 저질렀다.

특히 지난해 12월 청천벽력같은 민족의 대국상앞에 온 겨레가 피눈물을 뿌리고있을 때 리명박역도는 《북의 도발가능성》이니, 《〈한〉 반도안정의 위험》이니 하는 망발을 쥐치면서 남조선군과 경찰에 비상경계태세를 발령하고 임의의 시각에 군사적행동에 넘어갈수 있는 전쟁태세를 갖추게 하였다. 또한 《국론분렬》이니, 《원칙훼손》이니, 《남남갈등》이니 하면서 남조선 각계층의 조문길을 가로막고 조의표시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불망나니짓도 서슴지 않았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집권이후 인간쓰레기들과 극우보수단체들을 동원하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심리모략전을 악랄하게 벌림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하였다. 보수패당은 모략적인 《천안》호사건이후에는 군부를 직접 내세워 공화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라지오방송과 삐라살포를 대대적으로 감행하였으며 동족의 대국상과 때를 같이하여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애도기간에 여러차례나 삐라살포놀음을 벌려 우리 인민의 비통한 가슴을 더욱 아프게 란도질하였다.

남조선보수패당이 집권후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들며 《북인권법》제정이니, 《인권결의안》이니 하며 남조선은 물론 유엔무대에서까지 동족대결망동에 매달림으로써 북남관계가 민족적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대결과 불신의 길로 줄달음쳐왔다는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누구의 《급변사태》망상과 《흡수통일》야망에 사로잡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파괴하며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해온 리명박역적에 의해 오늘 북남관계는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파국상태에 처하였다.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리고 북남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는 반통일책동은 추호도 용납될수 없다.

온 겨레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고 대결을 격화시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반통일적인 동족적대정책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거족적인 투쟁을 벌려나감으로써 리명박패당과 같은 력사의 오물들을 깨끗이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김연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리명박역적패당이 그 무슨 《대화》를 운운하며 마치도 북남관계개선에 관심이 있는듯이 떠들고있는것과 관련하여 1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리명박역도가 새해벽두부터 그 무슨 《기회의 창》이요, 《상호불신해소》요 하고 떠드는가 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위한 공동노력》이니 뭐니 하며 마치도 북남관계개선과 대화에 관심이 있는듯이 희떠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괴뢰통일부 장관 류우익을 비롯한 하수인들도 요즘 련일 나서서 《대화통로개척》을 운운하는가 하면 《북이 대화에 나오기를 희망》하며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노력할것》이라고 철면피하게 놀아대고있다.

위대한 어버이를 뜻밖에 잃은 슬픔에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동족의 가슴을 란도질하고 지어 추모의 눈물에 대해서까지 험담한 천하의 극악한 역적패당이 저들의 대역죄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사죄도 없이 뻔뻔스러운 대화타령을 늘어놓고있는것은 피응어리진 우리 인민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다.

더우기 리명박패당은 《대화》를 떠들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북정책기조의 변화는 없다.》, 《대북정책의 중심을 굳건히 잡고 주도적역할을 하겠다.》고 하면서 불순한 대결적심보를 더욱 드러내고있을뿐아니라 이미 그 모략적정체가 만천하에 드러난 《천안》호사건이니 뭐니 하는것을 계속 거들면서 감히 그 누구의 《변화》와 《선택》에 대해 어처구니없이 지껄여대고있다.

리명박역도가 내외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악질 반통일대결분자인 김태효를 떼기는커녕 도리여 승진시킨 사실과 군사분계선지역의 괴뢰군부대를 싸다니며 《호전세력》이니 뭐니 하며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면서 북침전쟁열을 고취한 사실들은 역도가 속에 칼을 품고 더욱 도전적으로 나오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도대체 민족의 대국상후 천만군민이 천백배로 분발하여 일심단결의 위력을 떨치며 새로운 신심드높이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온갖 악담질로 우리의 존엄과 체제, 우리 인민을 터무니없이 중상모독하는 그런 천하악당, 대결광신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대화상대로 될수 있겠는가.

우리의 폭넓은 북남대화와 협상제안을 그처럼 악랄하게 반대해나서던 괴뢰패당이 지금에 와서 대화에 대해 떠들고있는 속심은 명백하다.

그것은 대역죄를 저지른 역적패당에 대한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치솟는 분노를 누그러뜨리며 폭발전야에 있는 남조선민심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내외여론을 오도하여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선거들을 무난히 치르어보자는데 그 음흉한 속심이 있다.

집권 4년간 온갖 못된짓을 다 하던 끝에 북남관계를 더는 수습할수 없는 완전파국에 몰아넣은 천하에 둘도 없는 역적패당이 신성한 북남대화를 감히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실현과 잔명유지에 써먹으려 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

리명박역적패당은 속에 없는 대화를 운운하기 전에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대역죄부터 온 민족앞에 사죄해야 한다.

역적패당의 반인륜적, 반민족적죄악은 천추만대를 두고 절대로 용납될수 없으며 우리는 온 민족과 함께 반드시 비싼 대가를 받아내고야 말것이다.

본사기자

역겨운 추태

《대화》를 떠드는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의 그 입에서 《북이 핵문제를 포함해 〈한〉 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책임있는 조치를 내놓기를 기대》한다느니, 《북이 새로운 발전의 길을 걷도록 돕겠다.》, 《개방과 발전의 좋은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느니 하는 넉두리가 계속 울려나오는것은 그것을 잘 말해준다.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은 공화국의 현실에 대해 너무도 모르고있다.

천만군민이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부흥의 전성기를 펼쳐나가고있는것이 오늘 공화국의 참모습이다. 그 어떤 《유혹》의 바람이 분다고 해도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것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기질이다.

속에 칼을 품고 《대화》에 대해 운운하는 위선자들은 절대로 우리의 대화상대로 될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자들이 저들이 지은 대역죄를 모면하며 집권말기에 처한 총체적파산의 운명에서 벗어나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동원하여 역겨운 추태를 부리고있지만 거기에 속아넘어갈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인륜도덕도 례의도 모르는 천하무뢰한, 동족대결광신자들의 무리인 리명박역적패당은 두고두고 민족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김철민

민족반역자들에게는 더는 기회가 없다

리명박패당의 《기회의 창》타령을 두고

리명박은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한반도의 변화》, 《진정성》을 운운하며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있겠다.》고 떠들었으며 통일부와 외교통상부도 《새해업무보고》라는데서 이러루한 나발을 불어댔다.

민족반역의 무리들이 떠들어대는 《기회의 창》타령은 론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남조선의 일부 언론들이 《정부가 달라졌다.》는 그릇된 여론을 조장하며 썩은내나는 리명박《정권》의 더러운 몸뚱이를 치장하는 조건에서 《기회의 창》타령속에 숨겨진 역적패당의 흉심과 불순한 목적에 대해 까밝히지 않을수 없다.

리명박패당의 《기회의 창》타령은 가장 후안무치한 넉두리이다.

민족의 대국상기간 역적패당이 저지른 만고죄악은 입에 담기조차 역스러운것이여서 일일이 렬거하자면 지면만 어지럽힐뿐이다.

대국상소식을 받자마자 내려진 《비상경계령》, 《북지도부와 주민의 분리대응》으로 발표된 너절한 《위로담화문》, 생색내기의 《선별방문》, 악담으로 엮어진 삐라살포, 지어 그 무슨 《최종책임》을 걸고든 공화국의 최고존엄에 대한 모독…

자칭 한민족을 운운하던자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동족의 아픈 가슴에 매운재를 뿌리고 죄악의 칼질을 해댔다.

세계와 인류앞에서 《동방례의지국》으로 자랑높았던 우리 민족을 톡톡히 망신시킨것은 물론이거니와 인간의 초보적인 례의도, 도리도 벗어던진 천하망나니짓을 했다.

오죽하면 《뉴욕타임스》를 비롯한 미국의 언론들과 국제인권단체들까지도 경찰을 내몰아 조의를 표하는 인민들을 탄압한 남조선《정권》을 준렬히 단죄하였겠는가.

하기에 남조선인민들을 비롯한 온 겨레는 역적패당을 《인간이기를 포기한 패륜아》, 《무지막지한 정치깡패》, 《인간쓰레기의 무리》로 락인하고 총결산을 선언하였다.

이런 속에서 리명박패당이 왜 그토록 《대화》니, 《평화》이니를 떠들면서 《기회의 창》을 력설하고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그것은 마치 저들도 북남대화에 관심이 있고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다는것을 보여주자는것이다.

저들이 저지른 대죄를 《대화》의 너울로 가리우고 분노한 겨레의 징벌을 모면하며 세계의 이목을 딴데로 돌려보자는것이 《기회의 창》속에 숨겨진 그들의 더러운 흑심이다.

리명박패당의 《기회의 창》타령은 민족에 대한 또 하나의 우롱이고 도전이다.

《기회의 창》타령에는 체제대결을 노린 《흡수통일》의 흉심이 그대로 비껴있다.

리명박패당이 집권한 때부터 북남사이에 대화나 관계개선의 기회가 없었던것은 아니다.

지나간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지난해초에는 사상과 정견, 소속과 신앙의 차이를 초월하여 폭넓은 대화를 진행하자는 공화국 정부, 정당, 사회단체의 련합성명이 나왔다.

하지만 리명박패당은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와 세계의 지향에 도전하여 군부예비회담부터 파탄시켰으며 미국과의 야합밑에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으로 대답하였다.

력사와 민족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 리명박패당에게 있어서 지난해말은 마지막기회였다.

공화국은 대국상기간 다른 나라의 조의방문단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였지만 한겨레, 한민족인 남조선의 조의방문단은 받기로 하였으며 래왕의 안전까지 담보할것이라는 성의있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남사이에 열려진 하늘길, 땅길, 배길을 총칼로 얼기설기 가로막았던자들이 지금에 와서 저들만이 내다볼수 있는 뙤창에 그것도 《원칙》이라는 쇠살창까지 쳐놓고 《기회의 창》이라고 뻔뻔스럽게 나발불고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마지막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리명박패당은 《기회》니, 《대화》니 하고 말할 터럭만 한 체면도 상실하였다.

리명박이 그 무슨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데서 《기회의 창》을 운운하며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떠들었는데 그 속심인즉은 그 대결의 뙤창으로 대국상을 당한 공화국을 넘겨다보며 체제, 민심의 《변화》, 《급변사태》가 있기를 꿈꾸면서 《흡수통일》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겠다는것이다.

《인도적지원》이니, 《대화의 문은 열려져있다.》느니 뭐니 하는 희떠운 소리에 《진정성》, 《상생, 공영》, 《원칙고수》 등 이전의 대결타령들을 그대로 섞어놓고있는것만 보아도 리명박패당의 《흡수통일》야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것을 시사해준다.

《조의장에서 흘리는 눈물은 강요된 슬픔이고 연출된것》, 《추도행사시 울지 않은 주민들을 수용소에 보내였다.》는 리명박패당의 악담은 세상을 경악케 한다.

역적패당이 인면수심의 야만들이라는것은 이미 날날이 폭로되였지만 아무리 《흡수통일》에 환장하였기로서니 감히 동족의 고결한 눈물을 외곡하여 공화국의 수뇌부와 인민을 갈라놓으려는 파렴치한 요설로 누구를 어째보려는 정치적도발을 서슴없이 감행할수 있단 말인가.

동족을 헐뜯고 순결성을 짓밟으려는 리명박패당의 못된 버릇은 무덤에 가서도 버리지 못할것이다.

공화국에서 변화가 있다면 군대와 인민이 어버이를 잃은 크나큰 슬픔을 최대의 힘으로 바꾸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를 따라 강성국가건설에 폭풍같이 일떠선것이다.

이제 급변사태는 공화국이 아니라 반인륜, 반민족, 반통일의 죄악을 덧쌓아온 리명박패당에게서 나게 될것이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흡수통일》을 망상하는 반역무리들의 《기회의 창》타령은 파렴치하고 몰상식한 궤변이다.

《기회의 창》타령의 궁극적목적은 전쟁대결이다.

일반적으로 대화는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인간의 보편적인 륜리도, 도의도 상실한 패륜패덕한들이 이러한 초보적인 상식을 알리 만무하다.

거덜날대로 거덜이 난 정치적 목숨을 부지하는 반역무리의 단말마적인 발악이 대결과 전쟁이라는것은 민족의 분렬사가 증명해주고있다.

썩은 고목의 부스레기신세가 되여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에게서도 몰리우고있는 리명박패당이 이제 내세울수 있는 《명분》이라는것은 《안보》, 《위협》뿐이다.

그래서 《도발》이니, 《응징》이니 피대를 돋구며 무장장비를 확대하고 외세에게 무력증강을 구걸하고있는것이다.

미국과 함께 《공동국지도발대비계획》에 공동서명하기로 한것, 미국으로부터 지상레이자표적지시기 200여대를 끌어들이기로 한것, 조선반도의 《화약고》로 불리우는 서해 5개 섬에 감시 및 정밀타격장비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 한것 등 리명박패당은 《기회의 창》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그뒤에서 새해벽두부터 북침전쟁준비에 혈안이 되여 날뛰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군신형땅크 60여대가 부산항을 통해 기여들고 미군7공군소속 전투기들이 군산에 날아든것도 리명박패당의 동족대결, 전쟁대결의 산물이다.

《기회의 창》으로 공화국을 엿보다가 《기회》만 조성되면 불뭉치를 들고 전쟁의 불을 지르겠다는것이 그들의 최종목적이다.

통일이야 되든 말든, 민족이야 어떻게 되건 상관없이 악어에 기생하는 악어새처럼 미국에 붙어 더러운 정치적목숨을 부지하자는 것이 리명박패당의 속심이고 정치적가치관이다.

리명박패당이야말로 친미사대의 표본이고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동족의 피로 얼룩진 손에 외세가 준 대결의 칼을 쥐고 날뛰는 자들과 손잡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기회의 창》이란 결국 동족대결전쟁을 합리화하고 침략전쟁에서 살길을 찾으려는 역적패당의 마지막출구이다.

리명박패당은 천만번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하여도 력사와 민족앞에 지은 대죄는 씻을수 없다.

《비핵, 개방, 3 000》과 같은 동족대결정책으로 집권기간 민족내부를 좀먹어온자들, 《기다리는 전략》, 《비상통치계획》과 같은 망상을 꿈꾸어온자들, 《도발》이니, 《응징》이니 뭐니 하고 떠들며 동족대결과 전쟁으로 삼천리의 평화를 유린해온자들이 바로 리명박패당이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런 자들이 민족의 좀벌레로 기생하는 한 겨레의 통일도 어려워지고 밝은 미래도 기약할수 없다.

민족과 력사와 인류의 량심앞에 씻을수 없는 죄를 지은 리명박패당에게 기회가 있다면 스스로 더러운 명줄을 끊을수 있는 기회이다.

천하역적 리명박은 이 말을 무심히 듣지 말아야 한다.

김정혁

인간쓰레기들의 비렬한 모략소동

사람들은 자기 부모를 잃으면 비통해하고 슬픔의 격정을 참지 못해 오열을 터뜨린다.

그런데 인간의 이러한 초보적인 륜리감정마저 모독하고 지어는 그것을 악용하여 위기모면의 수단으로까지 리용하는 짐승보다 못한 인간쓰레기들이 이 땅, 이 하늘아래 뻐젓이 고개를 들고 살아있다.

남조선보수당국의 극악한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편승하여 그들의 나팔수, 돌격대로 나선 《데일리NK》와 같은 극우보수언론들이 그렇다.

알려진바와 같이 최근 남조선의 《데일리NK》와 같은 극우보수언론들은 《조의식장들에서 흘리는 눈물은 강요된 슬픔이고 연출된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공화국인민들의 고결한 피눈물을 모독하였는가 하면 지어는 《추도행사시 울지 않는 주민들은 수용소에 보내였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까지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어내여 류포시켰다.

초보적인 인간의 감정은 물론 조선민족의 피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패륜패덕한, 반역아들의 소름끼치는 망동이 아닐수 없다.

땅을 치고 가슴을 쥐여뜯으면서 통곡하고 오열하며 하나같이 슬픔에 잠겨있은 대국상의 나날 이 나라 인민들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였고 통곡은 심장을 저미는 처절한 통곡이였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존엄이 있는 인민으로 내세워주시고 외세의 무분별한 침략위협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수호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겨레가 일일천추 바라는 조국통일위업에 불면불휴의 로고를 다 바쳐오신 통일의 구성이시였다. 오로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인민을 위한 길을 걷고걸으시다가 야전렬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은 정녕 이 나라 온 가정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였다.

하기에 이 땅에 태를 묻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위대한 장군님을 민족의 어버이로 존경하고 칭송하며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다.

한 가정의 가장을 잃어도 슬픔이 큰데 하물며 민족의 어버이를 잃었으니 우리 민족의 슬픔을 하늘땅 그 어디에 비길수 있겠는가.

《국상을 치르는 북녘동포들의 애통해하는 울음소리와 그 눈물은 마치도 바다를 이룰 정도로 북전역에는 애도의 물결로 들끓었다.》, 《북녘동포들이 진심으로 지도자를 흠모하고 한식솔의 어버이로 생각하며 그이의 서거를 애통하게 슬퍼하는 모습들을 보고왔다. 이것이 북녘동포들의 진심그대로다.》, 《그 어디에서도 가식이라는것을 전혀 볼수 없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추모하기 위해 조국에 온 해외동포들이 세계 그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눈물의 바다를 보며 토로한 말들중의 일부이다. 비단 이들만이 아닌 온 세계 인민들이 전파를 통해 지구의 공간을 꽉 채운 애도소식을 통하여 민족의 어버이를 잃은 커다란 상실과 아픔속에 흘리는 조선민족의 진정한 피눈물을 보았다.

그런데 《데일리NK》와 같은 극우보수언론들이 전민족적인 추모의 감정을 《강요된 슬픔》이니, 《연출》이니 하고 우롱하고 모독하였으니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격분할 일이 아닐수 없다.

제 부모를 잃어도 눈물 한방울 쥐여짤줄 모르는 랭혈한같은 인간쓰레기들은 민족의 어버이를 잃고 우리 인민들이 흘린 피눈물의 진가를 열백번 죽었다 살아난들 결코 리해할수 없다.

배신과 변절을 밥먹듯 하는 인간이기를 그만둔 어중이떠중이들의 집합체인 《데일리NK》와 같은 매문언론의 그 비뚤어진 입에서는 바른소리가 나올리 만무하다.

리명박역적패당의 턱찌끼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며 그 대가로 반역《정권》의 비위를 맞춰가며 공화국에 대한 온갖 비방과 악담질을 일삼는 《데일리NK》의 천추만대의 죄악을 온 민족은 그들의 무덤에까지 따라가서도 반드시 결산할것이다.

리명진

굴욕협정체결을 반대하는 남조선인민들의 초불집회

반역《정권》을 심판할 결사의 의지

최근 남조선에서 리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한 민주개혁세력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있다.

지난 15일 민주통합당의 당대표 및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가 열렸다.

전당대회 결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민주통합당 새 대표로 선출되였다.

선출직후 그는 연설에서 민주통합당과 경선에 참여한 80만시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리명박《정권》을 심판하는 승리의 대장정을 시작할것이라고 선언했다.

다음날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명숙대표는 새로 출발하는 당지도부는 《정권》을 심판하고 바꿔달라는 요구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면서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겠다고 말했다. 그런가하면 시민사회와 로동계, 민주계가 모여 경선하는 과정에 화학적 결합이 시작됐다면서 앞으로 《한나라당》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개인들의 힘을 모을것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10.26재보선부정선거》와 《BBK의혹사건》, 《내곡동사저의혹》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특검》도입을 주장했다.

17일에도 한명숙대표는 라지오연설을 통해 1%소수를 위한 정책이 아닌 99%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경제민주화를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야당세력들은 《정권》교체를 위해 앞으로 서로 협력을 통한 야권련대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날로 강화되는 야당민주세력들의 활발한 움직임은 사면초가에 빠진 리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을 더는 헤여나올수 없는 궁지에 몰아넣고있다.

본사기자

천하에 둘도 없는 파쑈폭군

세월이 흐르면 많은 력사적사실들이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점차 희미해지기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겨레는 민족앞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문민》독재자의 반민족적, 반인륜적죄악을 두고두고 잊지 않고있다.

지금으로부터 18년전 《문민》의 탈을 쓴 김영삼이 겨레앞에 저지른 조문방해행위가 바로 그것이다.

1994년 7월, 뜻밖에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를 잃은 대국상으로 온 겨레가 슬픔과 비애에 잠겨있을 때 남조선의 《문민》파쑈광은 조의표시는 고사하고 전군에 《특별경계령》과 《갑호비상령》을 내려 사상 전례없는 전쟁분위기를 고취하였다.

그런가하면 《보안법》을 내흔들며 조의방문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북행길을 총칼로 가로막고 10여일동안에 무려 수만명의 각계층 인민들과 진보적인사들, 청년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련행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북남관계는 형언할수 없는 대결과 긴장악화에로 줄달음쳤고 조선반도정세는 최악의 상태로 되였다.

결국 《문민》독재자는 특대형반인륜죄악을 저지른것으로 하여 북과 한번 제대로 대화도 해보지 못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였으며 오랜 세월이 흐른 오늘까지도 우리 민족의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이것은 북남관계사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할 심각한 교훈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인간의 초보적인 륜리도덕은 고사하고 동족대결의식이 골수에 꽉 찬 현 남조선집권자가 이번 애도기간에 선임《정권》의 망동을 망각하고 만고의 대역적죄를 저질렀다.

리명박《정권》은 공화국의 중대보도소식에 접하자마자 조의방문단파견을 요구하는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다 못해 조전에 올린 《서거》라는 표현마저 마구 뜯어고치는 천하에 둘도 없는 망나니짓을 서슴지 않았다.

그뿐아니라 우익보수반동단체들과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애도기간 여러차례에 걸쳐 감히 공화국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소요를 선동하는 내용의 반공화국심리전에도 광분하였다.

그들은 무엄하게도 《천안》호침몰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최종책임》을 공화국의 최고존엄과 련계시키면서 공식 조의표시를 할수 없다고 생트집을 부렸다.

이러한 사실들은 리명박패당이야말로 과거 《문민》독재자도 무색케 할 파쑈폭군이며 우리 민족과 한하늘을 이고 살수 없는 매국역적의 무리라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민족의 최고존엄을 건드리면서까지 대국상을 당한 동족의 아픈 가슴에 칼질을 해댄 역적들은 그가 누구이든, 지구상 그 어디에 있더라도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지금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의 가슴가슴은 죄악우에 죄악을 덧쌓은 리명박《정권》과 끝까지 결산할 각오와 의지로 만장약되여있다.

력사는 리명박《정권》이 민족의 대국상에 저지른 죄악으로 하여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줄것이다.

본사기자 김철호

◁ 백로 되랴 ▷

심화되는 갈등, 버림받는 《MB》

남조선의 리명박《정권》이 극심한 통치위기에 시달리고있다.

새해벽두부터 《정부》와 여당사이에 갈등이 더욱 표면화되고 리명박은 안팎으로 몰려 말이 아니다.

얼마전 《한나라당》의 비상대책위원회는 고속철도를 민영화하려는 《정부》의 《정책안》을 《국민의 우려와 부정적의견》이 있다며 반대립장을 표명해나섰다.

이를 두고 여론들은 《〈한나라당〉이 〈정부정책〉에 대해 명시적반대립장을 밝힌것은 현 〈정부〉들어 처음》이라고 전하면서 《박근혜비상대책위원회가 리명박〈정부〉와의 정책단절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전망된다.》고 평하였다.

지난 13일에도 박근혜는 《한나라당》 충청남도당 신년인사회에서 《충남에 올때면 약속의 의미를 되새기군 한다.》며 세종시과학기술연구지구건설공약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리명박을 에둘러 비난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현 《정부》와 간격을 두려는 《한나라당》의 고민과 속내가 그만큼 깊다는것을 말해준다.

알려진것처럼 《한나라당》은 지난해에 있은 《선거》들에서 련이어 패하고 지지률이 추락하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다. 최근에 있은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률은 겨우 24%정도였으며 더우기 보수세력의 지지기반이라고 하는 부산, 울산에서까지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에 대한 부정적인식을 표시하였다.

지금 남조선언론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저조한 지지률과 관련하여 《무너지는 〈한나라당〉》, 《등을 돌리기 시작한 민심》 등으로 보도하면서 《계속 추락하는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률이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전하고있다.

《한나라당》은 이대로 나가다가는 앞으로 있게 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도 참패를 면할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 출로를 현 집권자와의 결별에서 찾고있다.

당안의 《쇄신》파들이 《헌집에서 새집으로 이사갈 때 부담스러운 짐은 다 버리고 가야 한다.》며 가장 첫번째로 버려야 할 짐으로 《대통령》을 꼽은 사실과 언론들이 《한나라당쇄신》론의 초점이 리명박과의 관계단절로 모아지고있다고 평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이번에 《정부정책》에 반기를 들고나선것은 당이 궁지에 몰리게 된 첫번째요인을 리명박에게서 찾고 그와의 간격을 보여줌으로써 멀어져가는 민심을 돌려세우고 앞으로 있게 될 《선거》들에서 참패를 만회해보려는데 있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가 《고속철도관련정책에 반대한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선거〉가 다가올수록 〈한나라당〉이 야당보다 더 과감하게 〈정부정책〉을 비판할것》이라고 말한것은 이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수 있다.

사실들은 리명박이 대내외정책의 총파산으로 민심은 물론 여당내에서조차 버림을 받고있으며 《선거》가 가까와올수록 청와대와 《한나라당》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될것이라는것을 시사해주고있다.

나라와 민족은 안중에 없이 저들의 리익과 권력욕에만 미쳐 서로 물고뜯는 반역무리들의 개싸움질은 언제 가도 끝이 없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단평 궁색한 변명

죄를 진자에게는 항상 구실과 변명이 따라다닌다는 격언이 있다.

남조선의 《한나라당》에 신통히 들어맞는 말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나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싸이버테로사건》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리유인즉은 《데이터베이스(자료기지)가 끊어진것이(일각의 의혹처럼) 사람이 개입하지 않았을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서라는것이다. 말하자면 《싸이버테로사건》이 《한나라당》에 의해 저질러진것인지 아니면 콤퓨터의 오동작에 의한것인지 확인해보겠다는것이다.

《한나라당》만이 할수 있는 철면피하고 파렴치한 놀음이 아닐수 없다.

이미 폭로된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지난해 10월 26일에 있은 서울시장재보충선거에서 저들이 내세운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후보의 홈페지에 대한 《디도스》공격을 5시간에 걸쳐 감행하였다. 이것이 후에 드러나고 그것이 남조선판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일이 번지자 이에 당황한 보수당국은 경찰과 검찰을 내세워 《꼬리자르기》식 수사놀음을 벌리고 몇몇 하수인의 목을 떼는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다.

그러나 자루속의 송곳은 감출수 없듯이 세월이 흐르면서 《싸이버테로사건》이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감행한 범죄라는것이 하나둘 밝혀지고있다. 일이 이쯤 되였으면 입이나 다물고 쇠고랑이나 찰것이지 아직까지도 저들에겐 잘못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고 책임을 회피하고있으니 《한나라당》이야말로 낯가죽이 당나귀발통보다 더 두텁다 해야 할것이다.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격으로 《한나라당》이 구차한 변명을 내세우며 《싸이버테로사건》의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그들의 추악한 몰골만을 더욱더 드러낼뿐이다.

김응철

날로 꽃펴나는 민족전통과 생활풍습

설날이 눈앞에 왔다.

이 나라 인민, 겨레의 가슴속에는 민족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설을 맞게 되는 비통한 심정과 그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의 정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다.

오로지 인민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며 초강도현지지도강행군길에 계신 장군님, 그 바쁘신 현지지도의 길에서 설날을 비롯한 민속명절풍습에 대하여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며 민속전통을 적극 살려나갈데 대하여 그리도 강조하시던 어버이장군님이 아니시던가.

그이의 애국헌신의 장정이 있어 이 나라 강산에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이 찬란히 꽃펴나고있다.

하기에 설날이 다가올수록 위대한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를 더욱 절절히 그리며 그이께 감사의 절을 삼가 드리는 공화국인민들이다.

돌이켜보면 우리 민족은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하나의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한 강토에서 살아오면서 우수한 민족전통과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풍습을 창조하였다. 설명절풍습만 보더라도 지난날 우리 선조들은 설을 맞으며 우선 자기 부모들과 동리의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였고 서로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바라는 덕담을 주고받았다. 이날에는 윷놀이, 널뛰기, 연띄우기, 썰매타기, 팽이치기 등 민속놀이도 하고 세찬이라고 하는 설음식도 해먹으면서 남녀로소가 설을 즐기였다.

이런 훌륭한 민족성, 아름다운 생활풍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때 우리 민족은 외세에게 조국을 빼앗기고 식민지노예로 전락되였었다. 일제의 압제밑에서 우리 겨레는 전통적으로 즐겨오던 설명절을 잃고 양력설을 강요당하였으며 설날아침에는 하얀 민족옷에 일본놈들이 물총으로 쏘는 먹물을 들쓰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러했던 우리 민족이 오늘은 절세의 위인을 모시여 민족의 우수성과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는 가장 존엄높고 긍지높은 민족으로 온 세상에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올해에도 공화국에서는 설명절에 즈음하여 우수한 민족성을 더욱 살려나가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들을 준비하고있다.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회원 리우갑선생은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세계화〉의 소용돌이속에 많은 나라들에서는 고유한 민족적전통들이 사멸되여가고있다. 내가 살아온 남조선에서도 설명절은 허울뿐이고 각종 양풍, 왜풍이 범람하여 전통적인 생활풍습이 사라져가고있다.》

큰 산의 웅장함을 알려거든 멀리서 대비속에 보라는 말이 있다.

이역땅에서 살고있는 해외동포들도 민족적풍습이 날로 꽃펴나는 공화국의 현실을 보고 고국땅이야말로 민족의 얼이 살아숨쉬는 곳이라고 찬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민속을 버리면 민족을 잃게 된다.

60여년세월 민족분렬이 지속되고있는 이때 민족전통과 생활풍습을 버리면 조선민족의 단일성을 영영 잃게 된다.

단일민족으로서의 순결성을 고수하기 위해서도, 갈라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기 위해서도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과 전통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살려나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올해 설명절을 맞이하는 공화국인민들의 가슴속에 차넘치는 애국의 의지이며 맹세이다.

본사기자 박금일

설 인 사 를 드 리 고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전통적으로 쇠여온 설을 맞으며 사람들사이에는 벌써부터 우편엽서나 손전화, 콤퓨터 등을 통해 인사말들이 무수히 오가고있다.

설인사를 주고받는것은 우리 선조들의 전통적인 풍습이다.

우리 겨레는 설날에 덕담을 주고받으면서 이웃간의 화목을 도모하여왔는데 이 풍습과 정서야말로 화목하게 살기를 좋아하는 조선민족의 미풍량속이라고 할수 있다.

가정들에서는 서로 사람을 보내서 덕담을 교환하기도 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과는 편지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의 이러한 풍습은 어떤 말이든 들으면 그대로 될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고 새해에 상대가 반가와할 말을 들려주면 듣는 사람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준다는데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올해의 설인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고있다.

《어버이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맞이하는 첫 설명절입니다. 그이의 유훈을 받들어 하나된 조국에서 온 겨레가 함께 모여살 통일의 그날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나갑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민족의 어버이로 모신 긍지높이 통일애국사업을 더 잘 해나가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를 받드는 애국의 기둥이 되고 주추돌이 되여 우리 조국을 강성국가로 빛내여나갑시다.》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질 뜻깊은 올해 선생님의 사업과 생활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수록 새길수록 가슴뜨거운 인사말이다.

올해의 설명절이 과연 어떤 명절인가. 민족의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우리 겨레가 맞이하게 되는 첫 설명절이 아닌가.

하기에 올해의 설인사에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유훈대로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령도를 받들어 나라의 강성부흥과 조국통일을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바란다는 내용이 기본을 이루고있는것이다.

우리 겨레의 참된 도덕의리가 비껴있고 불타는 애국의 의지가 비껴있는 설인사!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인민의 한없는 그리움이 차넘치는 이 강산에 설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위대한 장군님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계시여, 가장 숭고한 도덕의리를 지닌 인민이 있어 공화국력사에서 2012년은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호평받는 조선옷점

설명절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평양시내의 여러 조선옷점들은 민족의상을 주문하는 사람들로 붐비고있다.

《살구꽃무늬를 새긴 조선치마저고리가 마음에 꼭 들어요.》

《이 명절옷을 척 입고나서니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같구만요.》

얼마전 우리가 동대원조선옷점에 들어서니 손님들이 저마다 새로 만든 조선치마저고리들을 입어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고있었다. 이곳 조선옷점은 명절옷, 혼례옷, 일상옷, 어린이옷을 비롯한 민족의상들을 잘 만들어 사람들속에서 호평이 대단하다고 한다. 특히 이곳에서 만드는 비단치마저고리와 비로도치마저고리는 녀성들의 몸매와 미감에 꼭 맞아 널리 소문이 났다.

우리와 만난 곽혜련책임자는 민족의상을 주문하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있다면서 높아가는 그 수요를 충족시키자니 일손이 딸릴 때가 많다고, 그렇지만 힘든줄을 모르겠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넓은 작업장을 돌아보니 녀성종업원들이 재봉기에 마주앉아 주문받은 민족의상들을 만드느라 여념이 없었다. 향라, 양단, 다색단, 비로도 등 아름답고 화려한 색갈의 옷감들로 하여 작업장안은 마치 꽃밭을 련상케 하였다.

손님들의 다양한 기호와 취미, 몸매에 맞게 자기들이 만드는 옷들마다에 정성을 기울이고있는 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느라니 자연 생각이 깊어졌다.

세상을 둘러보면 나라와 민족은 많아도 공화국인민들처럼 민족의상을 그토록 사랑하고 즐겨입는 그런 인민은 찾아보기 쉽지 않다. 《세계화》, 《일체화》의 광풍에 휘말려 많은 나라와 민족들속에서 전통적인 미풍량속이 하나둘 사멸되여가고있는 오늘 주체성, 민족성이 꿋꿋이 살아숨쉬는 공화국에서는 조상전래의 민족전통이 날로 활짝 꽃펴나고있으니 생각할수록 민족적긍지가 끌없이 샘솟아올랐다.

멋을 부리고 식을 내도 우리 식의 멋을 내며 민족적 정서를 적극 살려나가고있는 공화국의 현실을 생각하느라니 민족의상을 장려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이 폐부에 한가득 차오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조선치마저고리는 세계에 둘도 없는 고상한 민족옷이라고 하시면서 조선녀성들의 치마저고리는 정말 우아하고 보기 좋다고 사랑과 정을 담아 말씀하신 위대한 장군님. 평양을 비롯한 여러곳에 민족의상을 전문으로 하는 조선옷점을 꾸려놓고 조선치마저고리를 전통적인 풍습과 녀성들의 기호와 미감에 맞게 만들어 녀성들이 즐겨 입도록 은정어린 조치도 취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우리의 민족성을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고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민족전통을 활짝 꽃피우는 보람찬 일에 사색과 열정을 다 바쳐가고있는 동대원조선옷점의 종업원들이다.

이들의 미더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또 한분의 절세위인을 모시여 민족전통이 더욱 빛날 공화국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았다.

본사기자 박원평

김일성방송대학 교무부에서 알립니다

김일성방송대학에서는 설명절을 맞으며 기념특강을 다음과 같이 조직진행하려고 합니다.

강의제목: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민속전통을 고수하고 장려하는것은 민족성을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방도

강의시간: 1강의

송출날자: 주체101(2012)년 1월 24일

홈페지주소: http://www.ournation-school.com

전자우편주소(E-mail):schoolmanager@silibank.com

청강생 여러분들이 주의깊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 란 봉 상 춘 루 의 설 경

설명절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온 우리 민족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 민족의 설과 관련한 풍속은 외적의 침략으로 수난을 겪었지만 우리 선조들은 이를 굳건히 지켰다.

리조말기 개화파들은 서양의 문물제도를 받아들여 개혁을 추진하면서 양력사용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

1896년 고종은 년호를 《건양》(새로운 양력을 세운다는 뜻)으로 고치고 양력을 받아들였다.

고종은 1896년 양력설날 여러 대신들과 우리 나라 주재 외국공사들로부터 신년인사를 받았으며 모든 공문서를 양력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궁중의 내명부(궁중안의 작위를 가진 부녀자)들은 물론 벼슬아치나 려염집들에서는 양력설이 아니라 음력설만을 고유한 풍습대로 지냈다.

그 이후 머리단장과 의관제도, 음력설을 고수하기 위한 운동이 대중적으로 벌어졌다.

고종이 1904년 정식으로 궁중에서 양력설을 쇨데 대한 령을 내렸지만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막지 못하였다.

궁중에서는 여전히 음력설에 여러가지 의례를 진행하였고 벼슬아치들은 양력설을 적당히 치르고 진짜 차례(제사)는 음력설에 지냈다.

더우기 지방들에서는 양력설을 쇠는 집이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자 리조봉건정부는 정초가 되면 음력과 양력을 동시에 표기한 달력을 나누어주었지만 인민들은 양력설을 《서양설》, 《개화한 설》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음력설을 쇠는 풍습을 고수하였다.

특히 일제가 우리 나라를 강점한 후 양력설을 쇨것을 강요하고 일제어용대변지 《조선일보》와 《매일신보》가 양력설을 쇨것을 떠들었지만 우리 인민들은 그것을 《왜놈설》이라고 거부하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음력설을 계속 쇠여왔다.

본사기자

설명절풍속

우리 선조들은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이 행복과 즐거움을 가져다줄 해의 첫날, 으뜸가는 날이라는 의미에서 《원단》 또는 《원일》이라고 하였다.

음력설을 맞으며 우리 선조들은 각종 음식을 마련하고 남녀로소 할것없이 새옷을 차려입은 다음 여러가지 의식을 진행하였다.

《동국세시기》에는 설날에 새옷입는것을 세장, 제사지내는것을 차례, 친척과 년장자를 찾아 인사하는것을 세배, 그때 오르는 음식과 술을 세찬, 세주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다.

새해 아침에는 먼저 돌아간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산소를 찾아보았으며 성묘가 끝나면 친척과 웃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해의 축복을 비는 세배를 하였다. 아이들이 새옷을 차려입고 웃어른들을 찾아 인사를 하면 어른들은 복을 많이 받기를 바라는 말을 해주고 음식을 차려주었다.

집들에서는 문앞에 《세함》이라는것을 놓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적은 종이를 그 함에 넣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그후 년하장으로 바뀌여졌다고 한다.

설에는 떡, 떡국, 시루떡, 약밥, 찰떡, 단자, 강정, 물고기반찬, 편육, 식혜, 술 등을 마련하였으며 그가운데서 떡국, 약밥, 강정은 빼놓을수 없는 설음식으로 되였다.

설날에 어른들은 주로 윷놀이를 하였고 아이들은 연띄우기를 하였다.

올해의 설명절은 1월 23일이다.

설 날 그 믐 날

한해의 마지막날인 섣달그믐날을 제석 또는 제야라고 부른다. 우리 선조들은 옛날부터 이날을 중히 여겨 한해 동안 해왔던 모든 일을 끝맺고 그해가 가기 전에 빚을 청산하였다.

섣달그믐날저녁에는 조상을 모신 사당에 모여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산소를 찾아가 성묘도 하였다.

궁중에서는 섣달그믐전날부터 대포를 쏘았다.

또한 불화살을 쏘고 징과 북을 울리며 여러가지 놀이를 하였고 탈을 쓰고 여럿이 《처용무》(리조시기의 춤의 일종)를 추는 행사도 벌렸다.

섣달그믐날에는 집안팎을 대청소했다.

섣달그믐날 밤에 잠을 자면 눈섭이 희여진다고 하여 이날에는 방, 뜰, 부엌, 고간, 변소 할것없이 집안 구석구석에 불을 밝혀놓은채 잠을 자지 않고 날을 새웠다. 이것을 수세라 한다.

집집마다 밤늦도록 옛이야기를 하거나 윷놀이를 비롯한 흥미있는 놀이를 해서라도 잠들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다가 잠자는 아이가 있으면 눈섭에 하얀 밀가루를 묻혀주고 설날아침에 눈섭이 세였다고 놀려주었다.

본사기자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세배풍습

설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있다.

설은 우리 민족이 오랜 옛날부터 쇠여온 한해의 명절들중에서 첫번째로 맞는 명절이였다.

우리 민족의 설명절풍습가운데는 세배풍습도 있다.

세배란 설날에 웃사람에게 하는 인사를 말한다. 우리 인민은 설날이 오면 우선 세배부터 하였다. 세배는 웃어른순서로 하였는데 우선 집안어른들에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을어른들과 자기를 배워준 스승들에게 하였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른이 된 자식들의 세배를 받으면 기뻐하였고 손자, 손녀들의 세배를 받으면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들을 대견하게 여기며 귀여워하였다.

설날 로인들이 있는 집에서는 간단한 례물을 마련해놓았다가 세배를 한 아이들에게 주었고 어른들에게는 설음식을 내놓았다.

이웃마을이나 먼곳에 사는 웃어른들에게도 세배를 하였는데 보름전까지 세배하려 가면 례의를 지키는 것으로 여겼다.

친구들사이에는 새해 모든 일이 잘되기를 축복하는 말인 《덕담》을 주고받았다.

친구를 만나면 《새해에 아들을 보게나.》, 《새해에는 소원을 성취하기 바라네.》라고 그 사람에게 맞춤한 말을 하였다.

이와 같은 세배는 례의도덕이 바른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설맞이행사였다.

우리 나라에는 설날에 본인이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세배를 할수 있는 《세함》이라는것이 있었다.

직급이 높거나 늙은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설날 아침에 대문앞에 락자를 내놓았다. 일이 바쁘고 가까이 지내는 모든 집을 다 찾아다닐수 없는 사람들은 심부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사말을 적은 종이쪽지를 락자우에 놓고 돌아오게 하였다. 이것은 글로 세배를 대신하는 인사법이였다. 후날 《세함》인사법은 우편제도가 발전하면서 년하장으로 변하였다.

설맞이풍습의 하나인 세배풍습을 놓고도 웃사람들을 존경하고 례의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족의 우수한 민족성과 전통을 잘 알수 있다.

본사기자

민속음식 몇가지

◇ 떡국

우리 나라 설명절음식가운데서 가장 상징적인 음식은 떡국이다.

옛날 사람들은 천지만물이 새로 시작되는 설날에는 모든것이 엄숙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떡국을 먹었는데 1819년에 나온 《렬양세시기》, 1911년에 나온 《동국세시기》에서는 떡국이 정초의 차례와 세찬에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라고 하였다.

◇ 찰떡

찰떡은 흰 찹쌀을 시루에 쪄서 떡구유에 담아 떡메로 쳐서 만든 떡이므로 《친떡》이라고도 불렀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찰떡을 고급한 떡의 하나로 여기면서 명절때 쳐먹군 하였는데 떡치는 소리가 높아야 명절분위기를 한층 돋군다고 하였다.

◇ 녹두지짐

설명절때에는 녹두지짐뿐아니라 수수, 좁쌀, 강냉이 등 여러가지 잡곡을 재료로 하여 색다른 지짐을 지져먹기도 하였다.

◇ 약과, 강정

설명절에 어른들은 세배하러온 어린이들에게 흔히 약과나 강정같은 단음식을 주었다.

◇ 수정과, 식혜

설명절음료인 수정과와 식혜는 시원하면서도 달고 향긋한 맛으로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 마시였다.

◇ 세주

설명절에는 로인들에게 술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들도 《세주불온》이라고 하여 찬술을 한잔씩 마시는것이 풍습으로 되여있다.

예로부터 우리 나라에서는 어른들앞에서 어린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는것을 례절로 지켰으나 설날에는 세주라 하여 한잔씩 마시였다.

본사기자

떡 국

녹 두 지 짐

수 정 과